

대학의 자치와 개혁

영 국의 생물학자인 에릭 애슈비는 저서 『과학혁명과 대학』에서 대학을 유기적 생명체로 보고 있다. 대학이라는 생명체가 공통이나 맘모스처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도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유기적 복합체로서의 대학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닥쳐온다 해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고유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의 경우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생물로서 씨앗(種)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처럼 대학에도 그에 상당한 것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대학의 고유성이라는 것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서 유지해야 할 고유성은 첫째로 대학의 자치를 중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조화롭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념에 근거를 둔 자치적 기관이라는 성격을 지닌 사회적 제도인 것이다. 행정학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공동사회에서의 '자치'의 공통점으로 자율성과 자기통제를 들고 있다. 여태까지는 대학의 자치를 논할 때에 흔히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율성을 강조하여 왔고, 또 이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는 자율성 못지 않게 자기통제의 측면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정부통제의 굴레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과 수난을 감내하여 오면서 이제 겨우 대학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자치란 내부 구성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의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고 또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부 구성원의 자치의 폭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스스로 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외부에 열린 자치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으로 열린 대학 자치'와 '밖으로 열린 대학 자치'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자치의 중요한 내용으로 발전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일찍이 클라크 키 총장이 그의 저서 『대학의 효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은 멀티버시티화되었고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혁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대학 자치의 합리화



호남대 총장 이 대 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된 것이다. 대학 자체의 민주화와 합리화,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인 것이다.

현대경영론에서는 관리·운영의 종추기능으로서 정보탐색의 기능, 계획의 기능 그리고 평가의 기능을 기본적인 3대 기능으로 들고 있다. 이것을 대학 운영·관리에 적용할 때 정보탐색의 기능은 대학 자체에 관한 연구기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정신적 기반은 ① 대학 자체에 관한 연구기능, ② 계획기능, ③ 평가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 자체의 주요과제가 바로 이 세 가지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는 일이라는 데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대학은 사회와 자연의 여러 현상에 관한 연구의 본산이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학 자체에 관한 연구에는 소홀히 해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소 가운데서도 고등교육 연구소가 하나에 불과하고, 어느 대학에서도 대학에 종사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도 없으며, 그에 관한 강좌의 개설도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인은 모두가 대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전문인간지만 기실 가장 모르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자체에 관한 연구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계획기능과 평가기능은 대학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라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대학 내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강의평가제와 교수연구업적평가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대학의 전문영역별평가와 종합평가도 모든 대학이 수용하여 제도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대학평가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 본질을 떠나서 대학의 고유성인 자율성을 체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대학 발전을 위해 극히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의 평가는 원래 대학의 자치와 자기기율(自己紀律)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것이다. 이것이 평가인정의 본래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의 보장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의 향상에 있는 것이다. 이 본질과 목적을 떠난 대학평가는 자칫 다른 형태의 대학 통제를 자초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는 대학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이제는 정착되어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현안진단을 토대로 출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이 역으로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또 하나의 획일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